

## 晦窩 尹陽來 流配文學의 體裁와 流配時調 考察

권현주\*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晦窩 流配文學의 體裁
  - 2.1 『北遷日記』의 체재
  - 2.2 『甲棘漫詠』의 체재
3. 晦窩 流配時調에 나타난 流配者의 意識
  - 3.1 異質的 空間에 대한 拒否와 憧憬
  - 3.2 好意的 相對에 대한 그리움
  - 3.3 責任 轉嫁를 통한 自己 慰勞
4.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회와의 유배문학에 대한 체재를 규명하고, 유배시조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회와는 1722년 6월 20일 甲山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며, 갑산 유배를 소재로 하여 『북천일기』와 『갑극만영』을 편찬한 바 있다. 『북천일기』는 유배지로의 이동을 기록한 한문일기이며, 『갑극만영』은 유배지에서의 현실을 한시와 시조로 기술한 시문집이다. 본고가 회와 유배문학의 체재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와 유배문학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는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체재와 번역의 오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북천일기』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4월, 6월, 7월에 걸쳐 기록된 27일 동안의 일기라고 하였지만, 날짜의 오류를 정정하면 4월, 5월, 6월, 7월에 걸쳐 기록된 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갑극만영』의 경우는 한시 작품이 321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255편밖에 되지 않으며, 작품에 대한 오류와 번역의 오류 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회와의 유배문학 중 유배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회와 유배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와는 19수의 시조를 창작하였으며, 이질적 공간에 대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한 거부와 동경, 호의적 상대에 대한 그리움, 책임 전가를 통한 자기 위로 등의 주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핵심어 : 회와, 윤양래, 『북천일기』, 『갑극만영』, 유배시조

## 1. 들어가는 말

회와 윤양래(尹陽來, 1673~1751)는 1722년 6월 20일 甲山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며, 갑산 유배를 소재로 하여 『북천일기』와 『갑극만영』을 편찬한 바 있다. 『북천일기』는 유배지로의 이동을 기록한 한문일기이며, 『갑극만영』은 유배지에서의 현실을 한시와 시조로 기술한 시문집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회와의 『북천일기』와 『갑극만영』 소재 한시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시조에 대한 분석 역시 이루어진 바 있다.<sup>2)</sup> 하지만, 박을수가 해제한 『회와 윤양래연구』의 경우 그 체제에 오류가 있고,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회와 윤양래연구』를 기본 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를 통해 회와 유배문학의 체제를 정정(訂正)하고자 한다.

회와는 정사(正使) 이건명(李健命)과 함께 1721년 주청(奏請)사행의 동지 겸 주청부사(冬至兼奏請副使)의 직책으로 북경을 방문하였으며, 이들의 목적은 ‘청국(淸國)에 가서 세제 책봉(世弟冊封)을 청’하는 것이었다.<sup>3)</sup> 즉, 저사(儲嗣)

1) 安置尹陽來 甲山府. 『경종수정실록』 景宗 2年 6月 20日 1722年.

2) 박길남, 「晦窩 尹陽來의 삶과 문학」,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3, 89~108쪽; 박을수, 「회와 윤양래 시조 고찰 -시調 19首의 발구를 통해-」, 『국어국문학』 제125집, 국어국문학회, 1999, 187~204쪽; 朴乙洙, 「晦窩 尹陽來의 日記考察 -《北遷日記》의 발구를 통해-」, 『연민학지』 제9집, 연민학회, 2001, 117~150쪽; 朴乙洙,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1~648쪽; 송재연, 「윤양래 시조에 나타난 유배 체형과 가족애」, 『한중인문학연구』 제52집, 한중인문학회, 2016, 99~124쪽.

3) 1. 비변사에서 주청 부사(중략) 개차를 계청하니, 윤양래로 대신하였다. 備邊司以奏請副使(中略) 啓請改差, 以尹陽來代之 『景宗實錄』 景宗 1年 10月 14日 1721年. 2. 冬至兼奏請副使 尹陽來 『경종실록』 景宗 2年 4月 18日 1722年. 2. 좌의정 이건명을 보내어 청국에 가서 세

가 없는 경종의 뒤를 이을 세제로 연잉군(延祔君)<sup>4)</sup>을 책봉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와 일행은 1721년 10월 27일 서울을 출발하여, 12월 28일 皇城(북경)에 도착하였으며,<sup>5)</sup> 다음해 3월까지 북경에 머물러 있다가 왕세제의 책봉을 승인받은 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sup>6)</sup> 그런데, 주청사행의 정사였던 이진명은 북경에 도착하기 전인 12월 9일 면직을 당하게 되고, 주청사행의 일행들 보다 앞서 고국으로 돌아와 유배형을 받게 된다.<sup>7)</sup> 이는 이진명과 김창집 등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을 ‘四시’이라 지칭한 김일경 외 6인의 상소가 원인이었으며,<sup>8)</sup> 북경으로 출발하기 전 김창집 등과 함께 경종에게 ‘깊은 밤중에 소대(召對)를 청하여 세제를 정하게’ 한 인물 중에 이진명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회와의 유배동인은 이진명과 함께 청나라 각로(閣老)들 앞에서 경종의 위약함을 발설하였다는 것이었으며,<sup>10)</sup> 1722년 6월 19일 정해(鄭楷)가 상소를 올려 6월 20일 갑산 유배를 선고받게 된다. 회와는 영조가 등극한 후 유배된 지 연수로 4년 만인

제 책봉을 청하게 하였다. 遣左議政李健命等, 赴清國, 請冊封世弟. 『경종실록』 景宗 1年 10月 28日 1721年.

- 4) 이진명의 『寒圃齋使行日記』에는 ‘延祔君’을 ‘延成君’으로 표기하고 있다. 金一煥, 「李健命의 奏請 사행(1721~1722)과 『寒圃齋使行日記』,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8집, 2014, 183쪽.
- 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寒圃齋使行日記』, 『고서해제』4, 평민사, 2005, 439쪽.
- 6) 주청사인 좌의정 이진명과 부사 윤양래가 북경에서 출발하면서 먼저 세제의 봉진을 준청 받았음을 치계하였는데(하략) 奏請使左議政李健命, 副使尹陽來, 自北京離發, 先以世弟封典準請, 馳啓. 『경종실록』 景宗 2年 3月 26日 1722年.
- 7) 1. 命遞領相金昌集, 左相李健命. 『경종실록』 景宗 1年 12月 9日 1721年. 2. 1722년 4월 8일 압록강을 건너와 유배지인 羅老島에 도착해서 7월3일까지 지낸 기록과 임종을 읊은 시가 있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寒圃齋使行日記』, 『고서해제』4, 평민사, 2005, 440쪽.
- 8) 사직 김일경, 박필몽, 이명의,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등이 상소하기를(중략) 저 네 사람은 선왕을 잊고 전하를 저버림이 이에 이르렀으니,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司直金一鏡, 朴弼夢, 李明誼, 李眞儒, 尹聖時, 鄭楷, 徐宗夏等上疏曰:(中略) 彼四人者, 忘先王負殿下至此, 罪惡貫盈. 『경종실록』 景宗 1年 12月 6日 1721年.
- 9) 權賢珠, 「流配歌辭에 나타난 世界觀의 樣相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66쪽.
- 10) 감히 ‘위약’이란 두 글자를 제멋대로 성공에 더하였으며, 괴인과 문답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위질이란 말을 다시 되풀이하였습니다. 또 ‘좌우의 잉숙’이란 등의 말을 터무니없이 꾸며내어 군부를 크게 무욕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자로서 되어 감히 마음속에 발동하여 입 밖에 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敢以痿弱二字, 肆然加之於聖躬, 及其與彼人問答之際, 復申痿疾之說, 且以左右媵屬等語, 白地粧撰, 厚誣君父. 此豈爲人臣子所敢萌心而發口者哉? 『경종실록』 景宗 2年 6月 19日 1722年.

1725년 3월 5일 석방된다.<sup>11)</sup>

본고는 유배를 소재로 한문일기와 한시, 시조를 창작한 회와의 유배문학에 대한 체재를 규명하고, 유배문학 중 첫 번째로 유배시조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회와의 유배문학은 원본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을 기준으로 한다.<sup>12)</sup>

## 2. 晦窩 流配文學의 體裁

회와는 한문 유배일기와 한시, 시조를 통해 갑산 유배에 대해 기록하였다. 『북천일기』는 1722년 4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의 내용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으며, 『갑극만영』의 한시는 1722년 6월 26일부터 창작하여 1725년 4월 16일 날짜를 마지막으로 한다. 또한, 회와는 『갑극만영』의 뒷부분에 ‘歌曲’이라 분류하여 19수의 시조를 기술하고 있는데, 시조의 마지막 부분에 ‘용정 습년 을스 사월 흐헉 회와셔’라고 기록되어 있어 1725년(영조 원년, 乙巳) 4월 하현(下弦)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회와가 1725년 3월 5일 서용(敍用)된 것을 고려하면, 서용된 지 1개월 후까지도 한시와 시조를 창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항은 선행연구에서의 오류를 정정하여 회와 유배문학의 올바른 체재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11) 함경도 갑산부의 극변에 위리안치한 죄인 윤양래(중략) 모두 풀어 주도록 승전으로 계하 하셨습니다. 咸鏡道甲山府極邊圍籬安置罪人尹陽來(中略) 竝放送事, 承傳啓下矣. 『承政院日記』 靈照 1年 3月 5日 1725年.

12) 박을수가 해제한 『회와 윤양래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13) 박을수는 ‘그러나 시집의 끝에 「용정 습년 을스 사월 흐헉 회와셔」란 刊記가 있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중략) 그러므로 이 시집의 간기는 1721년 4월 22일임을 알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지만, 1721년은 회와가 유배되기 전이므로 시집의 간기가 될 수 없다. 박을수, 「회와 윤양래 시조 고찰 -時調 19首의 발굴을 통해-」, 『국어국문학』 제125집, 국어국문학회, 1999, 197쪽.

2.1. 『북천일기』의 체재

회와의 『북천일기』는 한문으로 기록된 유배일기이다. 회와는 1722년 4월 18일 주청사행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한 일부터 6월 20일 유배지가 갑산으로 정해졌다는 것, 21일 배소단지(配所單子)가 내려와 유배지로 출발하였으며 7월 8일 허천강(虛川江)을 건너 위리(圍籬)를 설치하였다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즉, 『북천일기』는 회와가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일기로 쓴 것이며, 유배지인 갑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일기가 아닌 한시와 시조를 통해 유배현실을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회와 윤양래연구』에 의하면 『북천일기』는 4월, 6월, 7월에 걸쳐 기술된 27일 동안의 일기이다. 그런데,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제시된 일기에 날짜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체재를 바로 잡고자 한다.

<표1> 『북천일기』 기록 날짜

(가) 『회와 윤양래연구』 <sup>14)</sup>				→	(나) 『북천일기』 날짜 訂正		
年	月	日	分量		月	日	分量
경종 2년	4월	18日 壬申/20日 甲戌/ 24日 辛亥	3日	4월	18日 壬申/20日 甲戌	2日	
	6월	初2日 乙卯 外 <sup>15)</sup>	16日	5월	24日 辛亥	1日	
	7월	初8日 辛巳 外	8日	6월	동일	16日	
				7월	初8日 辛巳 外	8日	

『회와 윤양래연구』에서는 회와가 4월 20일 이후 기술한 ‘二十四日 辛亥’의 일기를 4월 24일로 보았으며, 4월 24일이 辛亥가 아닌 ‘戊寅’임을 밝히기도 하였다.<sup>16)</sup> 그런데 실제 회와가 기술한 27일 동안의 일기 중 날짜가 잘못 기록된 것

14) 朴乙洙,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28쪽.

15) ①6월: 初2日 乙卯/ 初6日 己未/ 初8日 辛酉/ 16日 己巳/ 19日 壬申/ 20日 癸酉/ 21日 甲戌/ 22日 乙亥/ 23日 丙子/ 24日 丁丑/ 25日 戊寅/ 26日 己卯/ 27日 庚辰/ 28日 辛巳/ 29日 壬午/ 30日 癸未. ②7월: 初1日 甲申/ 初2日 乙酉/ 初3日 丙戌/ 初4日 丁亥/ 初5日 戊子/ 初6日 己丑/ 初7日 庚寅/ 初8日 辛巳.

16) 朴乙洙, 『晦窩 尹陽來의 日記考察 -<北遷日記>의 발골을 통해-』, 『연민학지』 제9집, 연민학회, 2001, 127쪽; 朴乙洙,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27쪽.

은 이틀에 해당하며,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지적한 ‘(4월)24일 辛亥’와 ‘7월 初8日 辛巳’의 기록이 그것이다.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4월 24일이라 주장한 일기의 경우, 바로 앞에 기술된 4월 20일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5월 15일에 왕십리 김수옹의 집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4월 20일 일기 이후에 기록한 ‘24일 辛亥’의 일기는 4월 24일이 아닌 ‘5월 24일’ 일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천일기』의 체재는 (나)처럼 바뀌어야 한다. 즉, 회와의 『북천일기』는 4월, 5월, 6월, 7월에 걸쳐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5월 24일 역시 ‘辛亥’가 아니며, 辛亥日은 5월 27일이기 때문에 날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월 初8일 역시 ‘辛巳’가 아닌 ‘辛卯’이기 때문에, 『북천일기』에는 이틀의 날짜가 오기(誤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월 중 ‘辛亥’일인 27은 ‘연잉군 휘가 왕세자에 책봉된 날’이며,<sup>17)</sup> 7월 초8일은 ‘추향 대제를 효령전에서 거행한’ 국가의 제사가 있던 날이었다.<sup>18)</sup> 『북천일기』는 회와가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날짜의 오류가 있는 5월 24일과 7월 初8일에는 유독 회와가 당면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회와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마다 날짜를 오기로 기록하여, 유배라는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기술하였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회와는 『북천일기』의 6월 初6일(己未)과 6월 19일(壬申)의 일기에 『경종(수정)실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종에 대해 위약(痿弱)과 위질(痿疾)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자신의 죄목(罪目)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처럼 회와가 『경종실록』의 내용을 『북천일기』에 기록해 둔 것은 자신의 죄가 ‘무함 입은 것’이었기에 이를 항변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기사가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즉, 무고에 의한 유배형이었기 때문에, 1725년 해배된 이후

17) 淸人遣使, 冊王世弟.(中略) 將親弟延礪君諱, 爲世弟. 『景宗實錄』 景宗 2年 5月 27日 辛亥 1722年.

18) 上行秋享大祭于孝寧殿. 『景宗實錄』 景宗2年 7月 8日 辛卯 1722年.

19) 역적 김일경이 지은 교문 가운데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렸다’라는 등의 한 구절은 비록 상사를 무함하여 죽이기 위해 말한 것이지만 신도 그 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교문 가운데

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천일기』는 회화가 유배지까지의 이동을 일기로 기술한 것이며, 1722년 4월, 5월, 6월, 7월까지 4개월 동안의 일기라 할 수 있다.

## 22. 『갑극만영』의 체재

『회와 윤양래연구』에서는 『갑극만영』 소재 회화의 한시가 321편이며, 시조가 19수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sup>20)</sup> 하지만, 필자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을 토대로 회화의 한시를 재고(再考)해 본 결과 『갑극만영』 소재 한시는 약 255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회와 윤양래연구』에 제시된 『갑극만영』과 원본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갑극만영』의 체재가 다르기 때문인데, 체재에 대한 오인(誤認)으로 인하여 회화의 『갑극만영』 소재 한시 작품의 수와 작품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 『갑극만영』 체재의 오류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	『회와 윤양래연구』 『갑극만영』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	『회와 윤양래연구』 『갑극만영』
2a	1a	54b	2b
2b	54b	55a	3a
3a	55a	55b	1b
3b	53b	56a	2a
4a(…)	(…)54a	56b	55b

<표2>를 참고하면 규장각 소장 『갑극만영』의 경우 원문이 2a부터 시작되고, 『회와 윤양래연구』에 기술된 『갑극만영』은 1a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규장각 소장본과 『회와 윤양래연구』의 『갑극만영』은 수치상 1

부도하고 망측한 말이 감히 말하지 말아야 할 곳에 미치기까지 하였으니, 신들이 무함을 입은 것이야 본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然逆鏡所製敎文中, 異國宣揚等一句, 雖爲構殺上价而發, 而臣亦與其罪矣. 其敎文中, 不道罔測之語, 至及於不敢言之地, 則臣等之被誣, 固不暇言. 『승정원일기』 英祖 1年 4月 26日 1725年.

20) 朴乙洙,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44~45쪽.

의 차이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본과 『회와 윤양래연구』에 기술된 『갑극만영』은 가장 첫 면과 마지막 면을 제외하고는 낱낱의 장(冊張)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은 2a부터 56b까지는 한시, 57a부터 59b까지는 시조가 기록되어있는데, 『회와 윤양래연구』의 체재로 기술된 한시의 경우는 그 체재와 작품이 어그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회와의 경우 『북천일기』에서 낱짜를 기록하듯 『갑극만영』 소재 한시에도 낱짜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많아 문집의 체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문집의 체재가 달라질 경우 회화가 시기별로 전언(傳言)하고자 한 것이 달라진다는 점과 이로 인해 회와 유배문학 전반의 흐름과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체재의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왔는데, 한 작품이 두 면으로 이어질 경우 서로 다른 두 작품이 한 작품으로 번역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sup>21)</sup>

<표3> 『갑극만영』 소재 한시 번역의 오류

출처	면수	작품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	34a	<春盡>
	34b	今日三春盡 오늘 봄이 다 지나가니 明朝四月來 내일 아침은 사월이라 流光如許速 세월은 빠르기만 하니 羈抱若爲裁 나그네는 붙들고자 하네 山雪猶含凍 산에 눈은 오히려 얼어 있고 林花尙未開 숲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네 虛窓愁獨倚 빈 창문에 근심스레 기대어 孤婦自生哀 홀로 휘파람 부니 슬프기만 하네
『회와 윤양래연구』 『갑극만영』	24a (34a)	<春盡>

21) 실제 『회와 윤양래연구』에 번역된 한시 중 작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이 약 30편이 된다. 제목의 오류, 번역의 오류, 번역되지 않은 한시 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작품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출처	면수	작품
	24b (32b)	寂蓼荒棘裏 고요히 거친 가시울타리 안에서 閑懶午睡時 한가롭게 게을리 낮잠만 자도다 忽忽春將暮 홀연히 봄은 장차 저물고 陰陰雪欲飛 흐린 하늘엔 눈발이 날도다 有僧來之飯 중은 밥을 얻으러 오는데 無客可言詩 시를 논할 손님은 없도다 臥到炊烟起 누워서 저녁 연기 일어날 때 이르니 前林宿鳥歸 앞 숲에 잠 자려는 새가 돌아오네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기술된 한시 <春盡>의 경우 제목과 작품이 면수가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 <춘진>으로 제시되었다.<sup>22)</sup> 즉, 『회와 윤양래연구』를 기준으로 하면 <춘진>의 제목은 24a면에, 한시 작품은 24b면에 연결되어 있지만, 원본인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을 기준으로 하면 제목은 34a, 한시 작품은 32b의 작품을 가져와 한 작품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의 <춘진>이 ‘3월의 마지막 날, 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면, 『회와 윤양래연구』에 기술된 작품 <춘진>은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춘진>으로 기록된 한시는 실제 제목이 <生朝>라는 작품이며, 생일날 아침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생조>의 앞부분에서는 ‘선조의 업적을 이으려 했더니 얇은 학식으로 어찌 재앙을 알았을까’라는 내용과 함께 두 형님과 외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뒷부분에서는 『회와 윤양래연구』에서 제시된 <춘진>의 부분 즉,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회와 윤양래연구』에 제시된 『갑극만영』은 원본과는 다른 체재로 작품이 배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갑극만

22) 『회와 윤양래연구』에 기술된 한시 중 제목과 한시 작품이 전혀 다른 것은 7작품이 있다. <憶時偕次寄朱書沈約韻> 규장각 21a-21b, <次放翁春晚韻> 규장각 23a-23b, <夕吟次韻> 규장각 25a-25b, <午食澗澗口號> 규장각 26a-26b, <自嚙> 규장각 29a-29b, <偶吟> 규장각 30a-30b, <春盡> 규장각 34a-34b.

영』의 순서 및 한시 작품들이 어그러져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4>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 기준 한시 작품

『갑극만영』 소재 한시(255편)			
창작 시기	작품 수	창작시기	작품 수
1722년(壬寅)	8편	1724년(甲辰)	194편
1723년(癸卯)	29편	1725년(乙巳)	24편

규장각 소장본 『갑극만영』을 기준으로 하여 한시 작품을 재정비한 결과 『갑극만영』에 기술된 한시는 총 255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와는 유배되던 해인 1722년에 8편을 창작, 유배된 지 1년이 된 1723년에는 29편을 창작하였다. 특히, 1724년에는 194편으로 가장 많은 한시를 창작하였으며, 이는 하루에 한 편의 시를 짓고자 한 회와의 다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sup>23)</sup> 자신에게 유배형을 내렸던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등극한 해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1725년에는 24편의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갑극만영』 소재 한시 중 가장 마지막에 창작된 작품의 날짜가 1725년 4월 16일인 것으로 보아 3월 5일에 서용된 후에도 한 달 정도 더 한시를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배되던 해인 1722년에 창작된 한시의 첫 작품은 철령을 오르며 지은 것이며,<sup>24)</sup> 해령(階令)의 시에 차운하여 ‘분수에 넘치게 금띠 두른 것을 미워한다’라는 내용을 기술하기도 한다.<sup>25)</sup> 즉, 회와는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게 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用燕館年字星>에서 회와는 유배된 지 반년(半年)이 되었다는 것과 위리(圍籬)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 같으며,<sup>26)</sup> 자신이 당면한 유배 현실을 묘사하기도 한다. 1723년에는 아들(지연)과 가족(아내, 형)에 대한 그리

23) 日課一詩猶未廢 強將蕪拙費推誠 <閑詠> 규장각 36a-36b.

24) <登鐵嶺口號> 규장각 2a.

25) <次時僭令謫中寄示韻> 규장각 2a.

26) 去國餘千里 離家已半年(중략) 圍籬同畫地 坐井但觀天 <用燕館年字星> 규장각 2b.

움을 많은 작품에 담고 있으며,<sup>27)</sup> <石鏡碎破戲題>에서는 떨어져 깨진 유리 거울처럼 회와 자신도 변화하여 ‘한 번은 위리에 머물고 한 번은 집으로 돌아 가고 싶다’라며 해배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는 모습도 보여준다.<sup>28)</sup>

1724년에 창작한 작품에서 회와는 자신이 유배된 지 연수로 3년째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면(赦免)되지 못할 것 같다’라며 자신의 속내를 비추기도 한다.<sup>29)</sup> 하지만, 경종 승하 직후 영조가 등극한 1724년 후반에 창작된 한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拜次伯氏韻>은 『갑극만영』의 체제상 1724년 가을에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8월 24일 경종이 승하하고, 8월 30일 영조가 즉위한 것을 고려할 때, 1724년 가을은 영조가 즉위한 그 해 가을이라 할 수 있다. 회와는 <拜次伯氏韻>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하늘과 땅이 바뀌고, 영고(榮枯)와 수단(壽短)이 모두 환상이라’라고 이야기 하며,<sup>30)</sup>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기술하기도 한다. 1723년 작품에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던 회와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반곡에 집을 짓겠다’<sup>31)</sup>라는 희망을 품기도 한다. 1725년에 창작된 회와의 한시에서는 1724년부터 해배되기를 기다렸지만 아직 위리안치 되어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으며,<sup>32)</sup> 해배가 확정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작한 한시가 작품군을 이루고 있다.<sup>33)</sup> 이처럼 『갑극만영』의 체제를 바로 잡을 경우, 회와가 유배 한시를 통해 시기별로 전언하고자 한 바가 드러나게 된다.

27) <之彥入來> 규장각 3a, 獨去病兒何處宿 遠離孀婦隔年愁 <日暮> 규장각 4b, <再和> 규장각 6b, <得家信> 규장각 6b-7a.

28) 安得此身千億化 一留圍棘一還家. <石鏡碎破戲題> 규장각 3b.

29) 荊棘羈留再見秋 此生無計返孤丘. <追次順卿秋字韻以寄> 규장각 10b-11a, 怪底蒹籬白髮翁 三年成得一腔同. <詠懷> 규장각 12b, 三年北塞形俱悴 千里南鄉夢不稀 蜀魄不知人有罪 聲聲勸我早還歸. <夜吟> 규장각 20a-20b 등.

30) 千年長在乾坤改 臘月屯窮鬼使驅(중략) 榮枯脩短同歸幻 堪笑鰥鵠小鷓鴣. <拜次伯氏韻> 규장각 41b.

31) 倘使他年歸故國 誓尋盤谷作吾宮 <拜次 伯氏韻> 규장각 42b-43a.

32) 聞說花巖老 生歸返故園(중략) 獨憐千里外 羈羽滯籠樊. <贈時偕> 규장각 53b.

33) <登厚峙嶺> 규장각 55b, <登侍中臺口號> 규장각 55b, <洪原途中作> 규장각 56a, <登鐵嶺口號> 규장각 56b.

회와는 유배형을 선고받기 직전부터 해배된 후까지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한문일기와 한시, 시조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회와 유배문학의 체재를 바로잡는 것은 회와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 3. 晦窩 流配時調에 나타난 流配者의 意識

『갑극만영』 소재 시조는 총 19수이며, 본 항에서는 시조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갑극만영』 소재 시조의 주제는 이질적 공간에 대한 거부와 동경, 호의적 상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책임 전가를 통한 자기 위로 등으로 나타난다.

#### 3.1. 異質的 空間에 대한 拒否와 憧憬

회와는 유배지인 갑산이라는 공간과 유리안치 된 자신의 상황을 『갑극만영』 소재 한시와 시조의 많은 작품에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낯선 공간인 갑산과 유리 속에 거처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거부의 반응을 보이고, 낯익은 공간인 고향을 기술할 때는 그리움을 표출한다.

##### 3.1.1. 낯선 空間에 대한 拒否

회와의 유배시조에서는 유배지인 갑산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갑산은 회와에게 낯선 공간이기에 회와는 이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

하늘이 북남北南엽시 다흔가지 보건마는  
이월이 거의가더 ㄴ눈플도 아나나니  
이러매 텃디의 큰 것도 유감함을 아노라

(나)

아마도 모를일은 하늘의 조화로쇠  
어제 덥더니 오늘은 뭇이치워  
하늘을 미리 알작시면 덥기칩기 넘너흐라

(가)에서 회와는 하늘이 북남 없이 다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이월이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가는(細) 풀도 나지 않는다며 갑산의 기후에 대해 묘사한다. 이 작품은 『갑극만영』 소재 한시<二月二十七日>과 관련이 있는데, ‘이월이 다 가고 다시 삼월이 와도(중략) 언 눈이 들을 덮으니 풀 싹이 나지 않네<sup>34)</sup>’라는 한시의 내용이 (가)와 닮은 것을 볼 수 있다. <二月二十七日>은 『갑극만영』의 체재를 고려하였을 때 1724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회와는 1724년 2월의 매섭도록 추운 날씨를 소재로 (가)를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회와는 유배된 지 연수로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산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한시와 시조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갑산은 회와에게 낯선 공간이며, 의도하지 않게 거처로 삼고 있는 곳이기에 더욱 더 적응하기 힘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가)의 종장에서 ‘이러매 텃디의 큰 것도 유감흙을 아노라’라고 기술한 것 역시 ‘추위와 더위가 어긋나게 돌아오는<sup>35)</sup> 변방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대한 한탄이며, 이는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갑산이라는 공간이 남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불만과 거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갑산의 기후변화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회와는 ‘어제 덥더니 오늘은 뭇이치워’라며 갑산의 변화무쌍한 기후에 대해 기술한다. 회와의 한시 <近來陰晴寒暖不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춥고 따뜻함의 기후가 하루 사이에 더웠다 추웠다 하는구나<sup>36)</sup>’라며 갑산을 기후의 변화가 심한 곳으로

34) 二月將窮三月來 陰凝天氣未全開 嚴風動樹花難着 凍雪埋郊草不胚 <二月二十七日> 규장각 22a.

35) 平分節候同南北 胡乃寒溫錯往回 <二月二十七日> 규장각 22a.

36) 寒溫氣候互乘除 一日之間暴慘舒 <近來陰晴寒暖不適> 규장각 33a.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갑산의 기후에 대한 거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장에서 ‘하늘을 미리 알작시면 덥기첩기 넘너호랴로 이어져 갑산의 기후변화가 모두 하늘의 조화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기술로 연결된다. 이는 한시 <近來陰晴寒暖不適>에서도 볼 수 있는데, 회와는 갑산이 ‘한온(寒溫)기후의 승제(乘除)가 나타나 ‘사계절의 흐름을 알 수 없으니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겠네’라고 기술하는 것이 그것이다.<sup>37)</sup> 즉, 갑산의 ‘한온기후의 승제’를 주제로 하였지만,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을 만큼 적용하기 힘든 낯선 공간과 지역적 기후를 회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와는 상당수의 한시 작품에서 갑산의 추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sup>38)</sup> 1724년 이후에 창작된 작품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 유배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갑산이라는 곳은 낯선 장소이며, 적용하기 힘든 부정적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와는 갑산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위리안치’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다)

뉘라서 위리속을 좁으리라 니르던고  
 혼 몸 용납흔 후 나쁜 곳은 군짜힐쇠  
 사름이 군짜힐 못 씨티면 텃해라도 좁으리라

(라)

온던하 헤어보니 너르다 못 니를쇠  
 험흔피 바다덜고 사름살디 아조적의  
 이압희 기벽흔 후의나 편흔 짜 불가호노라

37) 寒溫氣候互乘除(中略) 四序流行嗟未信 不知天意欲何如 <近來陰晴寒暖不適> 규장각 33a.

38) 暖少寒多草不生 春光似未到邊城 <十日又雪近來寒凜無異冬月> 규장각 25b-26a. 塞北窮邊地勢遐 寒溫氣候亦相差 青天白日時飛雪 三月東風未見花 <自述> 규장각 31a.

우리안치를 소재로 한 시조는 두 작품이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기술되는 우리에게 대한 묘사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에서 회와는 자신이 유배된 실제적인 상황을 기술하며, 초장에서 우리 속을 누가 좁다고 이르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중장에서는 ‘흔 몸 용납흔 후 나쁜 곳은 군짜힐쇠’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상당히 좁게 인식되는 우리 속의 공간이 실제로는 자신의 몸만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군 땅, 즉 쓸데없는 땅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와가 강조하는 부분은 종장이다. 즉, 사람이 ‘군짜홀 못 씨티면 텃해라도 좁으리라’라는 부분인데, 쓸데없는 땅에 대한 깨우침 즉, 좁은 우리 속이지만 이러한 현실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넓은 공간도 좁게만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는 자칫 자신이 당면한 현실, 즉 우리 속에 거처하게 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와의 한시 <簡謝趙子章牙山謫所>에 ‘가시울타리도 세상이니 어찌 슬퍼하겠는가<sup>39)</sup>’라는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면, 당면한 현실이 슬프긴 하지만 가시울타리 역시 세상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려는 다짐에서 나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 (라)에서는 우리 속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나타낸다. 즉, (라)에서는 우리 속을 좁다고 묘사하여 (다)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온 천하를 헤아려 보니 넓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험한 뫼와 바다를 제외하고 나니 사람 살 곳이 아주 적다고 회와는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롭살디 아조적의’라는 표현은 회와가 우리안치 된 장소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배되던 해인 1722년 창작된 한시 <口號>에서 회와는 ‘어지러운 가시울타리 안 조그마한 땅 겨우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네’<sup>40)</sup>라며, 좁은 우리 속에서 거처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묘사한 바 있었다. (라)에서 묘사된 우리 속의 현실과 한시에서의 모습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회와의 『북천일기』 마지막 기록에서도 허천강을 건너 유배지에 도착한 이

39) 柵棘何傷猶地上 <簡謝趙子章牙山謫所> 규장각 14a.

40) 亂棘圍籬方寸地 舉頭猶許望青天 <口號> 규장각 2b.

후 우리를 설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집 주위에 울이 처졌다. 관동(官僮)이 싸 가지고 온 큰 자물쇠에는, “신(臣) 누구를 여기에 봉한다”고 써 있었는데 이것을 도사에게 올리니, 도사가 서명하고 바깥문에다 채웠다’라는 내용이다. 갑산에 도착한 날부터 회와는 큰 자물쇠에 의해 봉해진 것인데, 자신이 당면한 현실이 상당히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현실을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담한 필체가 회화가 당면한 낯선 공간에서의 낯선 경험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회화는 『갑극만영』 소재 한시 작품에서 ‘가시울타리’라는 표현을 약 60회 정도 언급하고 있으며,<sup>41)</sup> 대부분의 작품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라)는 가시울타리가 치진 좁은 공간에서 거처하는 회화의 현실이 시조에 반영된 것이며, 종장의 ‘기벽헌 후의나 편흔 싸 불가호노라’라는 기술이 회화가 말하고자 하는 진심인 것이다. 따라서 회화는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우리 속의 현실을 상당히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사름살더 아조격의’로 묘사되는 좁은 우리 속의 삶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회화의 시조에서는 낯선 공간인 유배지 갑산과 가시울타리(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회화는 시조를 통해 이 낯선 공간을 거부한다고 할 수 있다.

### 3.1.2. 낯익은 空間에 대한 憧憬

유배지인 갑산은 회화에게는 낯선 공간이면서 낯익은 것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

허천강盧川江 건너편의 나날씨는 더 봉화烽火야

춥춥던傳訶야 목멱산木覓山의 다듯느니

내집이 그 아랫 이시니 편흔 소식消息, 던홀소나

41) 회화는 棘籬, 棘裏, 籬, 柵棘 등의 표현으로 ‘가시울타리’를 표현한다.

(나)

갑산甲山 편便한 소식 내라서 던흐아서  
삼천니三千里 먼길흘 순식瞬息의 가건마는  
이리로 오는 불 업스니 서울기별 모르옵니

(가)는 『갑극만영』 소재 <夕烽>을 시조로 풀어서 기술한 것이다.<sup>42)</sup> 회와는 ‘날마다 봉화가 편안함을 전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그렇기에 목덕산 아래 자신의 집에 봉화가 닿아 자신의 편안함을 전하고 또 가족의 편안함을 자신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허천(虛川)은 회와의 유배지인 갑산을 의미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북천일기』에서는 유배지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허천강을 건넜다’라고 하고 있으며,<sup>43)</sup> 『갑극만영』에서도 ‘머리를 허천으로 돌리면 풍진 세상이 막 허있구나’라고 표현하여 유배지를 허천으로 기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갑극만영』 소재 한시 255편에는 ‘甲山’이라는 지명이 한 차례도 기술되지 않으며, ‘허천’을 사용하여 유배지를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44)</sup> 그렇기 때문에 허천은 목덕산과 반대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즉, 허천은 유배지이며 낮선 공간이고, 목덕은 회와가 거주하였고 지금은 가족들이 남아 있는 회와에게 낯익은 공간인 것이다. 회와는 낮선 공간인 허천에서 낯익은 공간인 목덕산을 늘 동경하고 있음을 (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나)는 고향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회와의 모습을 묘사한다. 특히, (나)는 한시 <二月二日>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二月二日>에서 회와는 ‘보낸 편지는 오늘 도착할 것이지만 오는 편지를 어느 때에 받아 볼 수 있을까<sup>45)</sup>라며 ‘서울기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 서울에서의

42) 송재연, 앞의 논문, 113쪽.

43) 『북천일기』 7월 초8일辛巳.

44) <夕烽> 규장각 15b, <自嘯> 규장각 29a-29b, <次復命臣韻詠土風> 규장각 47a, <登東臺口號> 규장각 55a, <次白江謫三水時寄趙生韻書與感興老妓可憐> 규장각 56b, <登鐵嶺口號> 규장각 56b.

45) 邊城二月北風寒 千里思家道路漫 去信度於今日到 來書當以幾時看 老兄病妹能無恙 弱子癡孫倘不安. <二月二日> 규장각 12b.

기별을 기다리는 이유는 <二月二日>에서 볼 수 있는데, ‘늙은 형과 병든 누이가 평안한지 또 약한 아들과 어린 손자’에 대한 안부가 늘 궁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와는 (나)에서 서울 기별을 기다리는 것만 기술할 뿐, 가족이나 그리운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낮익은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 할 수 있다. 회와는 한시를 통해 편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기술하고 있는데, <散步口號>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집의 편지’<sup>46)</sup>를 기다리는 상황을 묘사하여 회와에게 편지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 <謹次伯氏除夕韻>에서는 ‘편지와 시가 함께 도착하니 슬픔과 기쁨이 새롭다’<sup>47)</sup>라고 하여 갑산에 유배된 회와에게 고향에서 오는 편지는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회와의 유배지인 허천과 갑산은 회와에게 낮익은 공간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다)

가식울 예운고더 고향 멀기 잘 흐앗테  
만일 갓잡던들 심각이 더홀너니  
출하리 바라도 못보니 니즐날이 이세라

(다)에서 회와는 가식울타리가 쳐진 유배지와 고향이 멀리 위치한 것을 다행이라 이야기 한다. 가까운 곳에 유배되었더라면 가족(그리움의 대상)이 더 많이 생각날 것이니 유배된 곳에서 고향을 ‘바라도 못보니’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회와는 한시를 통해서도 고향이 있는 남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배지에서 고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며 자신이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한다. <中秋次流頭日韻><sup>48)</sup>에서는 ‘고향이 있는 남쪽을 바라보니 길이 아득하다’라고 기술하여 현재 회와가 있는 유배지와 고향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밤중에 혼은 고향으

46) 從他寒棘年三擾 願得家書月一來 <散步口號> 규장각 20b.

47) 書與詩俱至 悲兼喜自新. <謹次伯氏除夕韻> 규장각 16a-16b.

48) 籬柵高於數仞墻 故園南望路茫茫 (중략) 中宵句引返鄉魂 <中秋次流頭日韻> 규장각 42a.

로 가는구나라는 구절을 덧붙여 회와가 늘 고향 즉, 낯익은 공간을 동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와는 유배라는 형벌로 인해 낯선 지역으로 이동한 후, 낯선 공간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낯익은 공간에 대한 동경을 통해 자신이 유배되어 있다는 현실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회와에게 있어 허천과 갑산으로 기슬되는 유배지는 낯선 공간이면서 낯선 경험을 하게 해주는 부정적인 장소이면서, 낯익은 공간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는 장소로 묘사되는 것이다.

### 3.2. 好意的 相對에 대한 그리움

회와의 시조에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는 일가에 대한 그리움과 연군에 대한 의식으로 나타난다.

#### 3.2.1. 一家에 대한 그리움

회와는 많은 작품에서 일가에 대한 고마움을 묘사한다. 회와에게 일가는 늘 그리워하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대상이다.

(가)

도형도 업슨짜회 흐몰며 미화梅花러나  
 히마다 젓근가지 서신의 부더오니  
 어즈버 고원춘식을 친히본듯 흐여라

(나)

미해야 나와너와 혼디 네자 원이러니  
 나는 너를 썬나 이곳의 와잇논디  
 년년의 날츠자 니르니 김흔 정을 늦기노라

(다)

주인아 네 구퉁여 날 썬나려 흘가마는  
 빗름의 썬러딘 님 불너오니 시외로쇠  
 아마도 골육ᄃ툐 정이니 아니 좃고 엇디리

(가), (나), (다)는 회화의 한시 <梅花辭>를 시조로 노래한 작품이다.<sup>49)</sup> (가)에서 회화는 자신이 있는 유배지엔 도화와 행화도 없는데 매화가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것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서신으로 받은 매화는 고향의 봄빛을 친히 보는 것과 같다고 기술한다. 회화가 매화를 좋아하는 것은 ‘봄꽃과 아름다움을 다투지 않고, 눈 속에서의 품격과 그윽한 향기를 보존’<sup>50)</sup> 하기 때문이다. (나)에서는 매화와 함께 살고자 맹세하였지만, 회화가 매화를 떠나 유배지에 거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림에도 해마다 자신을 찾는 매화에게 깊은 정을 느낀다는 회화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다. (다)는 매화가 주체가 되어 자신을 떠나간 회화에게 ‘네 구퉁여 날 썬나려 흘가마는’이라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이는 중장으로 이어지며 ‘빗름의 썬러딘 님 불너오니 시외로쇠’라고 기술되는데, 바람에 떨어진 매화가 부름 받아 (날려)오니 ‘새외(塞外)’에 있는 회화에게 닿았다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다)는 매화를 주체로 하여 새외 즉, 먼 유배지에 거처하고 있는 회화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골육ᄃ툐 정’으로 연결된 매화를 통해 회화가 위로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화사>에서는 (가)와 (나) 사이에 ‘說與梅花爾我兄’이라는 구절이 있다. 즉, ‘매화야, 네가 나의 형이로구나’라는 구절인데, 회화는 해마다 형이 꺾어 보내주는 매화를 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 (나), (다)와 <매화사>는 서신에 붙여온 매화를 보며, 형의 깊은 정에 감격하여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회화에게 매화를 붙여주는 사람은 회화의

49) 송재연, 앞의 논문, 99~114쪽.

50) 不學春花競鬪芳 雪中標格保幽香. <謹次 伯氏折寄梅花韻> 규장각 18a.

만형(伯氏)이며, <매화사>를 창작하기 전에도 만형이 보내온 매화를 소재로 한 한시가 여러 작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즉, 회와에게 매화는 만형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회와는 <詠 伯氏所贈梅花>에서 ‘변방의 봄이 특별한 곳에서 왔구나 (매화를)봉하여 보낼 때 향기가 꺾어질까 걱정했겠지<sup>51)</sup>’라며 매화를 통해 봄을 느끼고, 매화를 꺾을 때 향기가 꺾어질까 걱정했을 만형을 회상하기도 한다. 회와는 만형으로부터 받은 한시에 차운한 작품이 많은데, 죄인이 되어 유배지에 거처하고 있는 자신을 알뜰하게도 챙겨주는 만형을 회와는 많이 그리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회와는 유배된 죄인이었기에 일가를 만나는 것은 늘 꿈꾸는 일이었으며, 실제 꿈에서 일가를 만나기도 하였다.

(라)

꿈이 헛거신줄 번드시 알건마는  
일가를 만나보면 그려도 든든하네  
서름의 밤잠업스니 꿈인들 자졸너나

(마)

황혼이 거의로다 우리님 호마울가  
밤이 깊허가디 개소리도 못드들쇠  
당초의 이럴줄 아던들 언약이나 마로디아

(라)에서는 꿈에 일가를 만난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꿈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꿈에서 일가를 만나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회와는 말한다. 회와의 몸은 위리 속에 거하고 있지만, 정신은 늘 남쪽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시 <次 伯氏 下示韻><sup>52)</sup>에서도 고향과 일가를 그리워하여

51) 窓前夜識相思發 塞外春機特地回 把弄愛看新藥好 封藏恐遣暗香摧 <詠 伯氏所贈梅花> 규장각 18a.

52) 千里南北無會日 夜來惟有夢中看. <次 伯氏 下示韻> 규장각 8a.

늘 꿈에서 만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일가를 만나는 꿈은 자주 꾸지는 못하지만 꿀 때마다 반가운 것이다. 회와에게 일가는 늘 그리움의 대상이기에 헛것인 줄 알면서도 꿈에서라도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라)를 통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마)는 선행연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시조라고 분석한 바 있다.<sup>53)</sup> 회와의 시조 작품 중에서 ‘임’으로 표상되는 사람 중 임금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자면,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의견은 옳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散步口號>를 참조할 경우, 집에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며 ‘텅 빈 골목에서 개 짖는 소리는 들리지만, 문 앞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구나<sup>54)</sup>’라는 부분이 있어, 회와가 반드시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해석하기보다 늘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들일 수도 있고, 일가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와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대상 즉, 자신의 일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였는데, 매화를 통해 형을 그리워하거나 꿈에서라도 일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3.2.2. 戀君에 대한 意識

회와의 시조에서도 연군을 기술하고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와가 기술한 연군은 현왕(現王)보다 선왕(先王)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

석훤코 반가울손 두렷흔 보롬날 들  
 직충의 흘너드니 님의 늦 다시본 듯  
 더돌아 그름도 불그면 르슴 혼이 이시리

53) ‘그런데 이 시조에 쓰인 시어 ‘임’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갑산을 찾아왔던 ‘아들’을 지칭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송재연, 앞의 논문, 116쪽.

54) 空巷有時間犬吠 重門勇不見人開. <散步口號> 규장각 20b.

(나)

빅옥난간 돌넌넌디 오식선화 띄어서라  
 넷신하 모다되서 일당어슈 즐기더고  
 밍리의 이런 꿈 쏘작시면 밤낮 자려 호노라

(가)는 ‘보름날 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시원하고 반가운 보름날 달이 객창에 흘러들어 임의 낮을 본 것만 같다고 회와는 기술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보름달 빛이 객창에 흘러들어 임의 얼굴을 다시 본 듯 반갑다라고 기술하면서 ‘그믐날에도 이렇게 밝다면 무슨 한이 있겠느냐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sup>55)</sup> 그런데, 실제 회와의 호를 인지하고 종장의 구절을 해석하면 작품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즉, 회와의 ‘회(晦)’라는 글자가 ‘그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종장을 다시 해석하면, ‘저 달아(보름날 달) 그믐 즉, 회와에게도 밝게 비추어 주면 무슨 한이 있을까’라는 것이다. 즉, (가)는 보름날 달빛이 회와에게도 비추어 주기를 기원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름날 달빛을 보고 ‘님의 늦 다시본 듯’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달은 임금(君)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는 임금에 대한 연군의식을 담고 있으며, 부디 그믐도 밝게 비추어 주기를 바라는 즉,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회와는 임금을 ‘해(日)’가 아닌 ‘달(月)’로 지칭한다는 것이다. 회와의 한시 <又疊差字韻贈時偕>는 『갑극만영』의 체제로 보았을 때, 경중이 승하하고 영조가 등극한 후에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又疊差字韻贈時偕>에서는 ‘꿈에서 떨어지는 달을 보며 어찌 견딜 수 있으며, 무정하게도 끝까지 난알을 얻기 어렵구나<sup>56)</sup>’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떨어지는 달 즉, ‘落月’은 바로 경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중이 승하할 때까지도 서용(敍用)이라는 난알을 얻지 못한 것을 한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회와는 자신에게 유배형

55) 송제연, 앞의 논문, 118쪽.

56) 有夢何堪看落月 無情難得顆標枝 <又疊差字韻贈時偕> 규장각 43a.

을 선고하였던 임금(경종)을 보름날의 달, 혹은 달로 묘사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의 빛이 자신에게도 비추어 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연군에 대한 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나)는 과거에 조정에서 벼슬을 했던 시기를 꿈꾼 후, 그것을 회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넋신하 모다피셔 일당어슈 즐기더고’라는 구절은 옛 신하를 모두 모셔 한 자리(一堂)에서 친밀하게 군신의 관계(魚水)를 즐기고 싶다는 회와의 소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시 <述懷>에서는 ‘선왕(前王)이 계실 때에는 벼슬도 하였지<sup>57)</sup>라며 선왕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묘사되며, <又疊差字韻贈時偕>에서도 ‘봄바람에 높은 집에서 모였던 그 때’를 회상하는 모습<sup>58)</sup>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와가 벼슬하였던 때, 즉 선왕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묘사되는 현재의 임금은 ‘달’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선왕을 해(日)로 묘사하고 있지도 않는데, 이는 경종의 승하와 영조의 즉위를 생각한다면 ‘해(日)’는 차기 왕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유배를 소재로 한 시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회와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대상에 대해 시조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3. 責任 轉嫁를 통한 自己 慰勞

회와의 유배문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유배형에 처하게 한 인물이나 자신과 상대되는 당파를 드러내어 힐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시조 몇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가)

두렷흔 불근돌이 턴디의 ㄹ득하야

57) 生當先考分符日 仕及前王御極時. <述懷> 규장각 20b-21a.

58) 春風高閣當時會 細雨寒窓此夜思. <又疊差字韻贈時偕> 규장각 43a.

밤이 낮이되야 어두운 곳 업섯는디  
어디서 써가는 구름은 ㄱ리오려 흐느니

(나)

그믐엔 아히들아 고기잡기 흐디마라  
봄어름 ㄱ프러더 물어더 즐기는데  
엇디타 나먹기 ㄱ타호고 저 설운일 흐렸는디

(가)의 초장에서는 천지를 가득히 비추는 밝은 달을 묘사한다. 앞장에서 달은 임금을 의미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 달빛은 밤을 낮처럼 비추어 주는데, 어디서 떠가는 구름이 달빛을 가리려 한다고 회와는 기술한다. 회와의 시조를 비롯한 많은 시조 작품에서 ‘구름’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가)에서 달빛을 가리는 존재로 묘사된다. 회와의 한시 <簡謝趙子章牙山謫所>에서도 ‘남쪽 하늘 향하여 달을 바라보니 어지러운 산에 변방 구름이 막히었네<sup>59)</sup>’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회와가 유배된 갑산을 기준으로 남쪽 하늘은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한다는 것이고 달은 임금이니 분명 회와는 임금을 보고자 한 것인데, 어지러운 산의 구름이 회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와는 자신과 임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를 ‘구름’으로만 기술하고 있을 뿐 겉으로 드러내어 비난하지 않는다. 회와는 천지에 가득하던 ‘두렷한 불근덜’의 빛을 가린 존재인 ‘구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밝은 달도 달빛이 차단된 자신도 탓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에서 회와는 ‘그믐엔 아히들’에게 고기잡이를 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나)의 시조를 파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노래라 해석하기도 하였고<sup>60)</sup>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sup>61)</sup> 본고는 파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노래와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한다. 사실

59) 欲向南天同見月 亂山遮斷塞雲低. <簡謝趙子章牙山謫所> 14a.

60) 박을수, 「회와 윤양래 시조 고찰 -時調 19首의 발골을 통해-」, 『국어국문학』 제125집, 국어국문학회, 1999, 201쪽.

회와의 <打魚曲>만 살펴본다면 (나)의 시조는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시조를 통해 회와가 강조하는 것은 종장의 ‘엇디타 나 먹기 도타호고 저 설운일 흐릿는다’라는 부분이다. 즉, 봄 얼음이 막 녹은 후 물을 얻은 물고기를 ‘내 입맛만 위하여 죽이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물맨 아히들’의 고기잡이로 인해 물고기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나)의 ‘그물맨 아히들’은 (가)의 ‘구름’처럼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봄 얼음이 녹은 후 물을 얻은 물고기는 회와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회와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했던 자나 당파를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구름이나 그물 맨 아이 등으로 묘사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와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한다.

(다)

하늘이 만물별 제 다 슬겁게 삼겨시디  
**촉루검 눈이업서 오즈서를 몰나보니**  
 아마도 칼몬든 장인匠人이 하늘 죄인罪人되리르다

(라)

현원시 므스일노 탁녹싸흙 시작호야  
**하늘이 삼긴 사름** 죽이기 ㄱ르친고  
 만고의 삼황만 잇던돌 간과 빨일 업스리라

(다)는 ‘춘추 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오자서(伍子胥)의 충간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촉루검(屬鏤劍)을 내려 자결을 명하였다’라는 고사와 연결된다. 그런데 여기서 회와가 강조하는 것은 ‘오왕’의 어리석음이 아니다. 회와는 오왕을 탓하지 않는다. 다만 오자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촉루검이 문제이고, 촉루검을 만든 장인이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와가 촉루검을 만든 장인에

61) 송재연, 앞의 논문, 111쪽.

게 죄인이라는 명을 씌우는 것은, 장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오자서가 오왕에 대한 원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회와는 오왕에 대한 원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인데, 자신의 유배와 관련지어 생각하자면 임금에 대한 원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라)에서도 하늘이 삼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이야기 하며, 탁록(涿鹿)의 싸움을 시작한 현원씨(軒轅氏)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회와는 삼황만 있었다라면 간과를 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기술한 후, 싸움을 시작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가르친 현원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다)와 (라)에서 회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만물낼 제 다 슬겁게 삼겨시디’라는 것과 ‘하늘이 삼긴 사람’이다. 즉, 하늘은 모든 만물을 슬기롭게 만들고 사람 역시 하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것인데, (다)와 (라)에서 하늘이 만든 사람을 ‘축루검’과 ‘탁록싸움’으로 잃게 되는 참담함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유배현실에 대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과 함께 북경 주청사행에 참여하였던 이견명의 유배를 시작으로 회와 자신까지 유배된 형국을 (다)와 (라)에 빗대어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축루검’과 ‘간과’를 드리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힐난이 아닌 전혀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인하여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와는 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위리안치의 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은 채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나오는 말

본고는 회와 윤양래 유배문학의 체재를 바로잡고, 유배시조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의 3장에서는 18수의 시조를 주제별로 묶어 분석하였으

며, 마지막 한 작품은 본 항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늘이 붉다흐디 붉은줄 나모를쇠  
어딘이 복잇던가 사오나온 화도업데  
하늘이 붉을작시면 사오나오니 업스리라

위의 작품 초장에서 회와는 하늘이 밝다하지만, 밝은 줄 알지 못하겠다고 기술한다. 초장에 대한 대답은 중장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밝으면 사나운 이(人)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사나운 이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이 밝은 줄 모르겠다는 것이며, 회와의 한시 <次贈順卿從寄示韻>과 연관된다. 회와는 <次贈順卿從寄示韻>에서 ‘벼슬이 높아도 힘이 모자라며 복은 멀고 화는 이르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sup>62)</sup> 이는 중장의 ‘어딘이 복잇던가 사오나온 화도업데’와 내용이 비슷하다. 또한 한시 <次贈順卿從寄示韻>의 ‘높은 선비는 비웃음을 받았네’라는 부분과도 연결된다. 즉, 중장의 복도 없고 사나운 화도 남아 있지 않는 어진이와 비웃음만 받았다는 높은 선비는 회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장의 ‘하늘이 밝아지면 사나운 이가 없으리라’라는 내용은 <次贈順卿從寄示韻>의 ‘하늘이 잊지 않고 돌이켜 주면 혹 늦게 피는 국화의 기약이 있으리’<sup>63)</sup>라는 부분과 닮아 있다. 즉, 회와는 하늘이 자신을 잊지 않고 돌아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시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작품을 마지막에서 따로 언급하는 것은 복귀에 대한 회와의 바람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작품과 내용이 비슷한 한시 <次贈順卿從寄示韻>은 영조 즉위 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바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와는 19수의 시조를 창작하여 자신의 유배를 기술하였다. 회와의 유배시조에서는 이질적 공간에 대한 거부와 동경, 호의적 상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62) 官高力不任 福附禍宜至 <次贈順卿從寄示韻> 규장각 43a-43b.

63) 應被高人嗤 皓天不忘反 倘有菊花期 <次贈順卿從寄示韻> 규장각 43a-43b.

책임 전가를 통한 자기 위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회와의 한시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며, 본고에서 한시 번역을 따로 기술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구를 통해 회와의 한시를 분석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甲棘漫詠』,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一叢古 819.54-Y98g

『北遷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一叢古 951.05-B865i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 2) 단행본 및 논문

權賢珠, 「流配歌辭에 나타난 世界觀의 樣相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00쪽.

金一煥, 「李健命의 奏請 사행(1721~1722)과 『寒圃齋使行日記』」,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8집, 2014, 181~212쪽.

(UCI : G704-SER000014876.2014.58.009)

박길남, 「晦窩 尹陽來의 삶과 문학」,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3, 89~108쪽.

(UCI : G704-001062.2003.12.006)

박을수, 「회와 윤양래 시조 고찰 -時調 19首의 발음을 통해-」, 『국어국문학』 제125집, 국어국문학회, 1999, 187~204쪽.

朴乙洙, 「晦窩 尹陽來의 日記考察 -《北遷日記》의 발음을 통해-」, 『연민학지』 제9집, 연민학회, 2001, 117~150쪽.

\_\_\_\_\_,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1~648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寒圃齋使行日記」, 『고서해제』4, 평민사, 2005, 435~444쪽.

송재연, 「윤양래 시조에 나타난 유배 체험과 가족애」, 『한중인문학연구』 제52집, 한중인문학회, 2016, 99~124쪽.

(UCI : G704-000248.2016.52.002)

| Abstract |

## A Study on the System of Exile Literature of Yoon Yang-rae (Hoewa) and Exile Sijo

Kwon, Hyun-ju

Yeungnam Univ. Lecturer.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system of exile literature of Yoon Yang-rae (Hoewa) and study exile sijo. Yoon was exiled to Gapsan Mountain on June 20, 1722, and he compiled 『Bukcheon Ilgi』 and 『Gapgeuk Manyeong』 on the theme of his exile in Gapsan Mountain. 『Bukcheon Ilgi』 is a journal written in Chinese about the transfer to the place of exile, and 『Gapgeuk Manyeong』 is a garland that described the reality at the place of exile in Chinese poem and sijo. The reas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ystem of Yoon's exile literature is that errors in the system and translation were found in 『A Study of Yoon Yang-rae (Hoewa)』, which is the basic material in the study of Yoon's exile culture. First, in 『Bukcheon Ilgi』, advance researches stated that this journal was written over 27 days in April, June, and July. However, if the errors in the dates are corrected, it is possible to realize that the journal was written in April, May, June, and July. As for 『Gapgeuk Manyeong』, it was known that it listed 321 Chinese poems while it only lists 255 poems, and there are errors in the pieces and the transl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Yoon's exile literature by

focusing on the exile sijo in Yoon's exile literature. Yoon wrote a total of 19 sijos, which were written on the themes such as the repulsion against strange place, a longing for a favorable opponent, and self-consolation through imputation.

**Key words** : Hoewa, Yoon Yang-rae, 『Bukcheon Ilgi』, 『Gapgeuk Manyeong』, Exile Sijo